

OOΛE
MONDAY SALON

토탈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1976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디자이너를 위한 갤러리로 출발하였으며, 1984년에는 경기도 장흥에 국내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을 설립하였다. 당시는 미술관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등록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7년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처음으로 미술관 등록을 허가하였다. 이후 2002년까지 수많은 예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은 명소였다.

미술관의 개념의 확대와 함께 1992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예술 전반을 통섭하는 현대적인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점차 본관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공간은 국내외 현대미술 전시 외에도 음악회와 각종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도서 간행, 강연,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토탈미술관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건전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향유하는 풍요로움을 선물하고자 한다. 더불어 작가들에게는 무한한 실험정신과 창의적인 활력을 이끌어내는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지향함으로써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소통의 장을 꿈꾼다.

월요 살롱 개요 혹은 소개글 .(추후 추가)





10월 첫째 주

안녕하세요.

어제는 하늘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었습니다
공휴일이었지만 월요살롱은 예전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휴일이라서 인지 꽤나 많은 분들이 월요살롱에 참석해주셨는데요, 어제의 월요살롱의 이야기, 정토탈의 사진과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김선우 작가님께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가님은 저번주에 있었던 <어쩌다마주친 OO_예술가들의 플리마켓>에 참여작가로 같이 참여했는데요, 이번에는 월요살롱에서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작가님은 도도새에 대한 관심을 본인의 작업에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도도새에 대한 열정으로 작가님은 도도새가 멸종되었던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라는 섬을 한 달여 동안 돌아다니며 도도새의 흔적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셨다고 하셨다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번주 목요일날 오픈한 따끈따근한 전시, <Spectators : A Rather Brief Moment in Time>의 주인공 김태동 작가님과 이현우 작가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전시에 대한 에피소드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회화와 사진이 같이 전시되는 부분에서 매력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김선우

wind_island@naver.com



김선우는 동국대학교 서양화와 졸업을 하고, 현재 중구청 주관 '을지 아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을지로 레지던시에 입주 중이다. 현실에 안주하여 물 개성화,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하늘을 나는 방법을 망각하는 바람에 멸종의 비극을 맞이한 도도새에 투영하여 진정한 자유에 대한 답론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지난 2015년에는 일현미술관에서 주최한 <일현 트레블 그랜트>에 당선되어 도도새가 멸종했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섬'을 직접 방문하여 리서치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비롯해 최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모토로 주최한 <아트랩랩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새로운 작업 방향의 모색을 하고자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_Solo Exhibition

2015<기획 초대전 새상展>, 씨덱 아트 갤러리, 서울
2015<기획 초대전 아브락사스展, 스칼라티움 아트 스페이스,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YAP컨템포러리아트쇼, 인사아트프자, 서울
열음전, 문화공간 이목, 서울
해시태그전, 갤러리 다운, 서울
창원 아시아 미술제 <청춘본심>, 성신아트홀, 창원
셀레이는 봄! 세종마을展, 갤러리 291, 서울

헬로 문래 아트 페스타 '25x25 아트 캠페인', 치포리, 서울
페이스북 영 아티스트 선정작가전 이-음, beyond the boundaries, 갤러리 토픽, 서울
스페이스오뉴월 메이페스트 '그림을 걸자' 전, 서울
여름 특별전 'VACANCE IN GALLERY IMAZOO'展,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14 기획공모 모樂 모樂전, 갤러리 일호, 서울
오롯 아트마켓, 서진 아트 스페이스, 서울

_Award

2015, 대웅 영 아티스트展, 대웅 아트 스페이스, 서울
나는 무명작가다展, 아르코 미술관, 서울
New & Emerging Artists, LVS갤러리, 서울
내일의 작가 展, 겸재 정선 미술관, 서울
New vision 젊은작가 展, 하안 문화의 집, 광명
써주세요! 展, 아드레 갤러리, 서울
꿈과 마주치다, 갤러리 일호, 서울
YAP Reload, 갤러리 일호, 서울
일현 트레블 그랜트, 일현 미술관, 양양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2015, DDP, 서울
2014, 지극히 개인적인 서바이벌 킷, 갤러리 동국, 서울

2016, 아트랩랩챌린지 키덜랜드 최우수상,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젊은나래 청년작가 상, 한국 스포츠 마케팅 진흥원

2015, 제 6회 내일의 작가 상, 겸재 정선 미술관
일현 트레블 그랜트 상, 일현 미술관
스칼라티움 우수 선정 작가 상,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_Residency

2015~현재, 을지 아트 프로젝트, 중구청, 서울



김태동



나는 야행성이다. 한 낮의 도시는 분주하고 치열하고 부대껴서 게으른 나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텅 빈 밤으로 무작정 발을 향한다. 새벽의 공간들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과 스산함이 나를 안심시킨다. 도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내 앞을 지나간다. 처음에는 그들을 마냥 짝고 싶어 무턱대고 셔터를 눌러댔다. 흔들린 시선은 내가 마주본 풍경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을 멈춰 세우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새벽에 홀로 도시를 부유하는 사람들을 섭외했다. 낯선 이들에게서 오는 시선의 차가움과 야밤의 도시가 뿜어내는 스산함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만 같고 기구한 사연이 있겠다 싶은 묘한 기분을 감돌게 했다. 그런 이미지들을 모았다. 그들이 향하는 한 지점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 여전히 해매고 있다. 이 작업이 욕망의 공간을 부유하는 사람들과 도시의 이면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동 작가 노트 중

_Education

2011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순수사진전공 수료
2007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순수사진전공

_Solo Exhibition

2012 갤러리룩스 신진작가 지원전, GALLERYLUX, 서울

_Group

2012 SKOPF 선정작가 전시,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예정
2012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SKOPF) 소장품 전, KT&G 상상마당, 서울
2011 SKOPF AWARD 최종선정작가 3인 presentation, KT&G 상상마당, 서울
2011 2011 청년미술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도큐멘터, EXCO, 대구
2011 JUMF 주안미디어페스티벌, 주안역, 인천
2009 영월 마추하기,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2009 동강 국제 사진제 거리설치사진전,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2008 ASYAAF 아시아 청년 작가 축제, 구서울역, 서울

2008 7th Funny Sculpture & Funny Painting, 세줄 갤러리, 서울

2008 오늘날의 동화—서안미술대전, 서안예술대학, 서안 중국

2007 무한의 가능성—중앙예술제, 미술공간 현, 서울
2007 again Stationary and Flowing, 갤러리온, 서울
2007 Stationary and Flowing, 서비홍 예술대학, 북경, 중국

2007 환 2인전, 갤러리온, 서울
2007 HP TURN ON AWARD, 노암 갤러리, 서울

_Awards

SKOPF KT&G 상상마당 AWARD 최종작가 3인
서안 미술대전 우수상
주안 미디어 페스티벌 선정작가상

_Collection

휴스턴 미술관 2점 Museum of Fine Arts, Houston
KT&G 상상마당

이현우



그리는 행위가 곧 무언가를 지우는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한 그림이다. 광고를 목적으로 세워 둔 현수막은 오늘날 그 기능을 잃고 풍경을 가리는 존재로 인식 되었다. 현수막의 문구를 없애며 화면이 지워진 느낌을 강조했다. 현수막 뒤로 보이는 자전거의 모습은 가려진 느낌과 함께 그림에 대한 호기심을 더해준다. 낯선 환경, 묘한 색상의 배경, 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인부들이 있는 장면은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건물 뒤 배경을 없앴으로써 대상과 배경의 대비를 강조했으며 어딘가 낯선 공간처럼 느껴지길 원했다. 연속된 이미지는 그림에 운동성과 내러티브적 상상력을 더해준다

_Education

201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재학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

_Solo Exhibition

2017 2018 솔직한 회화,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지나가는 그림, 527 창작공간, 가평

낮:가림, 예술공간 서:로, 서울

원도우 갤러리,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_Group Exhibitions

2016 트윈 픽스, 하이트컬렉션, 서울

구경꾼들, 갤러리 구, 서울

2012 하티스트 제1회 미대생 공모전, 인사아트센

터, 서울

_Residency

2017 527 창작공간, 가평



이번 주는 아터테인의 대표 임대식 큐레이터님이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작가님의 작품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처음으로 작품을 소개하신 이상원 작가님은 이미 <어쩌다 마주친 OO> 플리마켓에도 여러 번 참가하여 토달과는 몇 번의 연결이 있지만 이번에는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작가님은 처음에 회화에서 작품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해가는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작가님의 작품은 회화를 베이스로 두고 하시는 작업들이라 작업들이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작품의 형태들이 변하면서 미술관 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되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캔버스에 담고 싶어 그림을 그렸다' 라는 말을 통해 작가 이상원의 작품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달에서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원 작가님의 뒤를 이어서는 정두섭 작가님이 본인의 작품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상원 작가님의 말을 빌려 설명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파격적인 작업을 형태를 지닌 작가'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획전에 작품이 소개될 정도로 작업들이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작업이 파격적인 이유는 내면에 있는 분노를 다루는 작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정말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D 그래픽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신데 렌더링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품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0월 둘째 주

이상원



이상원은 청양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했고 베이징, 파리, 크라이스트처치와 서울에서 작업해왔다. 현대인들이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는 공동의 기억들, 특히 획일화, 대중화, 대형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스펙터클한 풍경들을 그려오고 있다. 금호미술관, 영은미술관, 우산갤러리, 두산갤러리 등에서의 10여회 개인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에서 200여회 기획전에 참여했다.

_Education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06 홍익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과 석사과정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Mono gaze>, 쌀롱 아터테인, 서울

2015 <길 잃은 시민>, 우손갤러리, 대구

2014 <The Multiple>, 영은미술관, 광주

2012 <Space Color Movement>, 선컨템포러리, 서울

2011 <Leisure and Crowd>, 스페이스캔, 서울

2010 <Eye of Beholder>, 두산갤러리, 서울

_Group Exhibition

2015 <나는 불꽃이다, 서울>, 63아트미술관, 서울

2015 <위대한 일상>, 스페이스K, 대구

2014 <사회적 풍경>, LG 아트센터, 서울

2014 <Water—천진난만>, 소마미술관, 서울

2014 <사람, 사람들>, 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2014 <네오산수>, 대구미술관, 대구

2014 <Generation>,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3 <에덴을 벗어난 나비>, 펠리니갤러리, 베를린, 독일

2013 <구.채.경.힐링그라운드?>, 소마미술관, 서울

2012 <Distances, 텐진아비컬쳐프라자>, 오카야마, 일본

2012 <공간 그리고 풍경>, 63스카이라이트미술관, 서울

2011 <서울, 도시탐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I'ma Distance, Keep a Distance>, 성곡미술관, 서울

2010 <미술 속 삶의 풍경>,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0 <신진기에—up and comers>, 토탈미술관, 서울

_Award

2015 코리아나 아티스트 프로젝트 작가 선정,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 영은미술관, 광주

2012 씨때데자르 입주, 파리, 프랑스

2010 레드게이트스튜디오 입주 레드게이트갤러리, 북경, 중국

200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8 한국—뉴질랜드 국제교환입주, 크라이스트처치

아트센터, 뉴질랜드

2007 창동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_Residency

2011 스카이라이트 신진작가 선정, 63스카이라이트미술관

2011 SeMA 신진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2009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금호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_Collection

서울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

행, 금호미술관, 영은미술관, 서울국제금융센터, 포스

코,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LG전자

정두섭



작품을 통해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그에게 ‘너’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에너지’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것은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과거에는, 패션, 사진, 간판, 파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영화 VFX 스튜디오에서 Creature TD (Technical Director)로 일을 하며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작품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권력생산> 시리즈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_Education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졸업

Academy of university 대학원 애니메이션 선

전공





10월 셋째 주

김병관



김병관 작가는 한성대학교에서 회화과를 전공했다. 작가의 예술이 다루는 사회는 시물라크르를 팔아먹는 소비자본주의로서, 그는 시대적인 아이콘들과 미디어의 소비재들을 가지고 변주하는 작업을 한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대하는 흔한 이미지들을 페인팅이라는 수단으로 파괴하고, 찢고 다시 재조합하여 어떤 다른이미지로 확장시킨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길을 벗어난 다른 낮은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_Education

1997 한성대학교 회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2 <Drawing for version 0.0>, 가회동60, 서울, 한국

2012 <X-report>, Gallery Aura 초대전, 서울, 한국

2011 <New Discourse 우수작가개인전>, Cyart Gallery

_Group Exhibition

2013<난지아트쇼> :므시모시네의 사생활>난지미술창

작스튜디오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2012 <크리스탈 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2 <6명의수상자를만나다>, CJ E&M센터컨테이너 전시장, 서울, 한국

_Award

2012 시아(SIA) 미디어아트공모전최종선정,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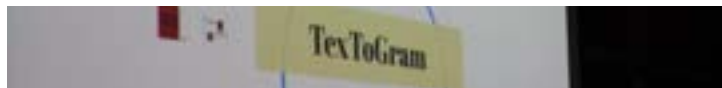
2011 New Discourse Fine artist selection 최종선정, 서울, 한국

_Residency

2013 서울시립미술관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SIA 수



강재형



텍스트는 인간의 사유를 가시화 시키고 현실화 시킨 결과물이다. 따라서 인문과학은 텍스트의 연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사고의 결과들을 기호화하고 그 기호들을 코드화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게 되면서 텍스트는 이제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단순히 사고를 현실화시키는 작업 이외에 오히려 텍스트가 사고를 지배하는 고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텍스트는 거대하고 강력한 지배체계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사유하고 소통하는 매 순간마다 텍스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SNS상의 소통은 텍스트 그 자체라 할 만큼 텍스트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우리의 사고체계뿐 아니라 삶의 패턴과 동시대 문화의 흐름까지 담을 만큼 그 자체 함의의 폭이 광대하다.

2017 MBC 아나운서 국장

1987 MBC 아나운서 ~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학 석사

개인전

2016 <텍스트그램_TEXTTOGRAM> , 아터테인, 서울

2011 <HAPPY SKY> 아틀리에 아키

단체전

2018 SeMA Guild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문관, 서울

2018 화이트테이블 마포아트마켓 마포중앙도서관, 서울

2017 천변아트페어 홍제천변, 서울

2017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블루스퀘어NEMO, 서울



10월 넷째 주

로드쇼 르완다



〈로드쇼〉는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네 명의 작가들이 르완다로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온 이 후구제적인 작업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지만, 여행담의 포맷과 확연히 다른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낯선 나라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 그들의 기억, 감정과 마주한 작가들은 예술의 방법론과 예술과 사회, 작가와 책임, 특히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모색한다. 그들이 찾고 만나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 진지한 탐구열이 토론으로 이어지거나, 때론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 무력함에 대한 고백과 성찰에 이르는 과정은 이 다큐멘터리의 미덕과 일치를 이룬다. 성실하게 기록하는 카메라, 타인들의 삶과 만난 작가들의 또 다른 카메라, 그들의 눈과 마음, 행동을 통해 (작가와 작품, 다큐멘터리 모두가) 스스로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술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대면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 같다. 작가와 작품에 연관된 토대는 흔들릴 수 있음을, 타인의 자리를 결정짓는 본능적인 감각이 언제나 옳을 수 없음을, 나의 작업 안에 등장하는 타인들과의 애착만큼이나 거리감도 존재함을 진솔하게 기록한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활기찬 춤, 함께 만드는 그림, 어둡고 깊은 숲의 송고함과 도로의 흙먼지, 시장의 복닥거림과 공존하는 르완다의 고통스런 기억과 죽은 자들의 안식을 구하는 노래가 우리에게도 새겨질 것이라 믿는다. [글, 박인호]



10월 다섯째 주

이희승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지 못하는 평소의 생활습관에 비춰보면 이 데이터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들 까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신체활동과 관계된 기록은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데 언제 얼마나 움직였는가에 대한 수치는 그 당시를 떠올리는 지표로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간편적인 숫자들을 통해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앞 뒤가 잘린 어느 순간 뿐이지만 말이다.

_Group Exhibitions

2009 <아시아프>, 옛 기무사 터, 서울

2010 <아시아프>,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2014 <7.01kg>, 아트스페이스 세이, 서울

2015 <CRESCENDO>, 북수동 성당 홀리 화랑, 수원

2015 <INTAC/Desire_The Double-edged Sword>,

Kunstquartier Bethanien, 베를린/서울

2016 <jpg>, 지금 여기, 서울



김가람

garamkim.com@gmail.com



김가람은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2011년 런던 첼시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작가는 각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 사회적 이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변화와 차이점을 유화적인 실험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감상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개인전 《comment》를 비롯하여, 수봉다방 (2014-15) 프로젝트, 2014년 토탈미술관 《Daily Reflections》전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14 AliceOn Awards 신진작가로 선정되었다.

_Education

10/2010~09/2011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런던, 영국) M.A. in Fine Arts

03/2003~02/2008 이화여자대학교 회화 · 판화(서양화) 전공

_Solo Exhibition

2016 UPDATE, KT&G 상상마당, 서울

2016 아젠다 헤어살롱,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6 ACS#2: the AGENDA hair salon, 2016

Düsseldorf-Projekt, Finwerkstatt, 뒤셀도르프, 독일

2015 comment, 정다방 프로젝트, 서울, 한국

_Awards

2016 SeMA 신진미술인 전시지원금, 서울시립미술관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AFKO)

2016 시각예술도록자료보존역사연구소전, 서울경제지원센터

2014 AliceOn Awards _New Stream 2014, 한국

신진 뉴미디어아티스트 Experimental

Media Art 부분 선정작가

_Group Exhibition

2016 Close Relation, KT&G 상상마당, 서울

2016 60sec ART,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5 경험의공간 Ex-Air (고양레지던시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국내작가전), MMCA 고양레지던시, 고양

2015 BAFE.亮(ABOUT KOREA), MMCA 청동레지던시, 서울

2015 the AGENDA hair salon (서울-뒤셀도르프 교류 2인전), Atelier am Eck, 뒤셀도르프, 독일

2015 임시계약자들, 공개실험 프로젝트, 인천

2015 INTRO 인트로, MMCA(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15 수봉다방, 수봉다방(프로젝트스페이스), 인천

2014 Daily Reflections,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토탈미술관), 서울

_Residency

2015-16 고양레지던시 (MMCA:국립현대미술관)

2015 Landshauptstadt Düsseldorf, MMCA 고양레지던시

국제 교환입주 프로그램, 뒤셀도르프, 독일 (GRANT)

_Activities

2015 오픈스튜디오11:De-position, MMCA 고양레지던시, 서울

2015 Kunstpunkte, 뒤셀도르프, 독일

2013 Archive Exhibition at THE MEDIUM (Alice On), 서울

2013 OPEN STUDIO Artists Open studio at

ASC Southwark, 런던, 영국

2012 OPEN STUDIO Artists Open studio at



11월 둘째 주



11월 셋째 주

김승영



설치미술가로 활동하는 김승영은 서울에서 거주하며 주로 물, 이끼, 돌, 낙엽 등을 비롯한 자연 재료와 함께 빛과 음향, 사진, 단순한 기계장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부터 작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진행해오다가, 1999년 P.S.1 국제레지던시를 다녀온 후 일상과 삶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경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최근 <소통과 치유>와 <기억> <삶> <개인과 사회의 역사와 관계> 라는 테마에 관심을 두며 영상과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_Education

1991 홍익대학교 조소과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각과

_Solo Exhibition

2016 Reflections,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6 Are you free from yourself, 향촌문화관, 대구
2012 Walking in My Memory, 아산정책연구원 갤러리, 서울
2012 Walking in My Memory, 분도갤러리, 대구
2011 WALK, 사비나미술관, 서울
2009 Traces, CEAAC, Strasbourg, 프랑스
2009 Self Portrait, ca'di for contemporary art, 밴쿠버, 캐나다
2009 Two Drops, 웨이방갤러리, 서울
2008 흔적, 공간화랑, 서울
2008 Mindscape, 분도갤러리, 대구
2007 세상의 꽃, 웨이방갤러리, 서울 / 아트팩토리, 헤이리, 파주
2003 기억의 방, 북하우스갤러리, 헤이리 / 아트 팩토리, 헤이리 / 헤이리아트밸리 야외, 헤이리, 파주
2001 P.S.1 보고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 금산갤

러리, 서울

1999 기억의 방, 원서갤러리, 서울 외 6회 개인전

_Group Exhibition

2016 심해, 수은, 당산의 호흡: 찾기 힘든고정점, 블루메미술관, 헤이리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억조창생>, 용지호수공원, 창원
201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이전30주년 기념프로젝트 작품과 조명,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 brilliant memories 동행,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광주
2016 Now Watching, ceaac,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2015 links- locality and nomadism, The Galaxy Museum of Contemporary Art, 중국
2015 뉴턴의 배, 시안미술관, 영천
2015 터치더씨, 예비뉴엘 아트홀, 서울
2015 바다에 관한 세가지이야기, 백경미술관, 강원도
2015 세종대왕 청주에 남시다,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5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문화역서울 284, 서울





11월 넷째 주

노경희



청명한 새벽, 어린 햇살이 파고든 숲 속을 걷는다. 얇은 안개를 한 꺼풀 입은 숲의 숨결과 냄새, 갓은 소리를 호흡한다. 멀고 아득한 바다를 관조하며 몸속으로 침투하는 평온함을 양껏 받아들인다. 느리게 변화하지만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는 하늘을 본다. 심신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연으로 달려가 비우고 달랜다. 때로 조화롭고 때로 불협화음인 자연의 풍경은 그 자체로 감명을 준다. 오감으로 침투하는 이러한 순간들은 언어화되지 않는다. 나는 명명되지 못할 그 순간들을 그린다. 장면을 그린다고 하여 순간의 감상, 혹은 감명이 견고하게 재현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창작은 작가 자신의 직접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기에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을 기다린다. 그림은 그들 스스로 반성을 거듭하여 내적으로 성장한다.

_Education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2012 M.F.A Slade School of Fine Arts, UCL,
London, UK

London, UK

The 5th4482[Sasapari]: Map the Korea, Barge
house, London, UK
2011 Slade Interim Show, Slade Woburn Research
Centre, London, UK

_Solo Exhibition

2014 Omnipresent, 갤러리 버튼, 서울 / 鬱林_울림,
63 스카이라이트 갤러리, 서울
2008 Silent Landscape, 갤러리 영, 서울 주요단체전
2016 부산한 전시, 미부아트센터, 부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COEX, 서울
2015 Pilot hole, 복림빌딩, 서울
그림, 숲을 거닐다, 아침고요갤러리, 아침고요 수목원
x 오픈갤러리, 가평
로데오 옥션, 플랫폼,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COEX, 서울
2013 Elements, ArtEco Gallery (현 Kristin
Hjellegjerde gallery), London, UK
2012 Rising Stars, Coombe Gallery, Dartmouth, UK
Jerwood Drawing Prize, Jerwood space, London,
UK
Slade Degree Show, Woburn Research Centre,

2010 Between the acts, 한진 프라자 갤러리, 서울
2009 후지와라 요지로의 아시안 희망 프로젝트, 금산
갤러리, 헤이리
Korean Galleries Art Fair, 부산 백스코, 부산 Asian
Young Artists, 도쿄 금산 갤러리, 도쿄
2012 Monnington Prize, Slade School of Fine Art



노기훈



노기훈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지리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관해 사진 찍는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로부터 비롯된다'는 전제로부터 현재를 감싸는 과거로부터의 흔적들, 예를 들어 정부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1세대 공업단지(구미),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유효함(1호선), 경제적 무능력이 발생시킨 노숙자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있는 그들이 찾는 서울의 특정한 공간(검은 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공간으로써 영원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 역사적 장소-광장의 불변함(미장센)과 같은, 과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 공간을 사진 찍는다.

_Education

1985 한국 구미 출생.

사진, 정 2010 BFA - 중앙 대학교, 서울, 한국

2012 중앙 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서울)

관, 부산

<닫기 관계>, KT & G 상상 마당, 서울

<눈썹>, 대구 KEDA 프로젝트

<인천 예술의 전당>, 인천 광역시, 인천 광

역시

2015 Seoul Lunar Photo 2015 <방랑과 정착의 정착

>, 아트 스페이스 보안, 서울

<2015 IAP 비디오 선집>, 인천 아트 플랫폼

폼, 인천

<풍경의 기억>, SPACE 291, 서울

<소개>,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2014 <예술제 레이더스 페스티벌>, 서울 시청 갤러

리, 서울

<만동 유네스코>, 만동, 서울

<죄송합니다. 잊지 않은 셉습니다.>, Mite-

Ugro, 광주, 한국

<인천의 풍경>, 인천 컴팩트 스마트 시티, 인

천, 한국

<첫 만남>, 빈자리 우정의 시작, 인천 아트 플

랫폼, 인천, 한국

2013 <인천 아트 플랫폼 입주자 2013년 최종 보고

서>, 인천

_Solo Exhibition

KT & G 상상 마당 2016 Line 1, 서울

2015 Mise en Scene, 우주 - 아무 데나, 서울

2013 두 번째 거리 (구미 2009-2013), 인천 배 더
리 포토 갤러리

_Group Exhibition

2017 <서울 포토 페스티벌>, 서울 (예정)

<유니온 아트 + 플러스 X>, 인사동 133, 서
울 (예정)

<불의 제전>,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2016 <Bright, Passionate>, 아름다운1, KF 갤러
리, 서울

<아카이브 베트남>, 아르코 아트 센터, 서울

<All Gates>, 신포로 15221, 인천, 한국

<중계>, 영천 아트 레지던시, 영천, 한국

<2016 SAJINMIRASAKAK>, 고은 미술





12월 둘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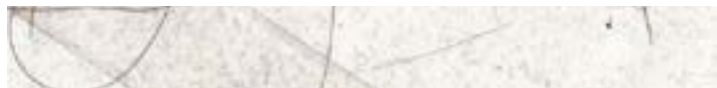
이정우



이정우는 대중문화와 미디어, 특히 영화 매체에 의해 허구적 인식과 이미지가 수용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다뤄왔다. 작가는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이미지와 인식들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든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공포탄(Shot Blank)”에서 작가는 한국 공포영화의 관례화된 메커니즘을 해체하여 공포영화의 서사가 배제된 이미지들과 조합한 영상을 선보였다. 영상의 장소들은 공포영화 제작을 위한 로케이션 헌팅 아카이브로, 영화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사가 배제되어 있음에도 공포영화에서 감지되는 ‘익숙한 공포의 환영을 느끼게 한다. 이는 물리적 폭력을 주지 않지만 공포(恐怖)를 유발하는 ‘공포탄(空砲彈)’이라는 동음의 제목과 연결된다.



최운석



Education

2009 - 2011 런던대학교(UCL) 슬레이드 예술학교,
MFA 회화와 졸업
2001 - 2007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양화학과 학사졸업

_Solo Exhibition

2015 “그의 부동산 목록”, 스페이스오뉴월, 서울

—Group Exhibition

2016 “현대미술경향읽기”, 아미미술관, 당진
2016 “살짜는 전시” 공간 291, 서울
2016 “Please Return To Busan Port” 베스트포텐 미술관, 오슬로, 노르웨이
2016 “부산한 전시”, 미부 아트센터, 부산
2015 “Pilot Hole”, 도곡동 543-4 복림빌딩, 서울
2015 “Hesitation Form: 시작되면 사라질 것”,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5 “Life is Unwritten”, FIFTYFIFTY, 서울
2015 “Have a Good Day, Mr. Kim”, 마이클 호어 바흐 재단, 쾰른, 독일
2015 “다른방식의 O”, 두산 갤러리, 서울
2014 “이대로 96hours”, 서대문구 대현동 40-40, 서울
2014 “TOP10전”, 파주 메이크샵아트 스페이스, 경기
2014 “3H: (각자의 자리에서) 말은바 최선을 (다하자)”, 평창동 445-15, 서울
2014 “할 프로젝트AIDVideoShow”, 스페이스매스, 서울

_Performance and Screening

2015 “크로스프로젝트_눈에보이지않는것들에관한

미미한예술적고찰in 분당”, 분당중앙공원일대, 경기
2014 “부부생활프로젝트3: 부부”,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4 “크로스프로젝트_신도시의 냉정한 아이스박스:

신청아”, 분당중앙공원일대, 경기
2014 “예술가의 런치박스: 부부생활프로젝트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부부생활”, 선인장공간 웨이즈오브생, 서울

_Project

2016 “릴레이 액처 퍼포먼스-요지경”, 오픈더도어, 서울
2015 “2015 오뉴월 Mayfest”, 협력큐레이터, 스페이스오뉴월, 서울
2014 “퍼블릭서비스: 친절, 봉사, 협동”, 독산파출소, 서울
2014 “생활과 일 일과 생활”,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14 예술교육 워크숍 “2014 신나는 예술여행: 아티스트출장위패” 협력기획, 당진, 원도 등
2014 “오뉴월 메이페스트 (O' New Wall Mayfest): 촉발전”, 협력큐레이터, 스페이스오뉴월, 서울

_Awards

무진형제



소음으로 가득한 영상에서, 적막한 것은 오로지 1902호 여자뿐이다. 여자는 닫힌 문 안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때때로 여자는 소음의 근원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만, 소리의 진원지는 외부에 있지 않다. 여자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 바느질 작업을 하며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 그 형상은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벌레 껍질 같은 형체와 닮았다. 커다란 껍데기는 거동에 방해가 될 만큼 그녀를 고통과 고립감 속에서 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타고난 외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채 그 몸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이처럼, 무진형제는 매 순간 거대한 시간에 잡아먹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힘에 대해서 말한다. 일상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각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직시하며, 거대한 시간 속에서 꿈틀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이다.



12월 셋째 주

정지현

정지현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작가는 도시가 변화하는 장면을 도시의 재개발 현장이나 신도시 건설 현장과 같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 속에서 찾고, 그 변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이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송은아트큐브의 《Construction Site》(2013)와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되었던 《Demolition Site》(2014)를 비롯하여 같은 해 두산갤러리 뉴욕에서의 2인전 《Site & Place》(2014)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가했다. 수상경력으로는 2013년 제 6회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올해의 최종작가》, 2014년 제 5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우수포토폴리오, 제 36회 《중앙미술대전》에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다.

-제7기 모하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3.04 ~ 2014.04

제7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1.11 ~ 2012.05

제10기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8

단원미술제 단원미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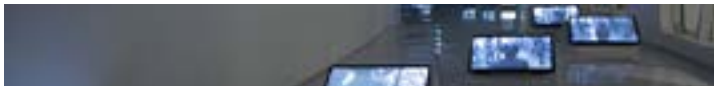
2017

제13회 장두건미술상



유비호

Ryubihoo@gmail.com



유비호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하였다. 최근 '성곡 내일의 작가상' 수상기념으로, 2015년 성곡미술관에 초대되어, 개인전 <해 질 녘 나의 하늘에는(2015)>을 치렀다. 그는 2000년 첫 개인전 <강철대양> 이후 동시대 예술가, 기획자, 미디어 연구자들과 함께 '예술과 사회 그리고 미디어 연구모임' 인, <해킹을 통한 미술행위(2001)>, 등을 공동 조직하고 연구, 활동을 해 왔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예술과 사회에 대한 미적 질문을 던지는 <유연한 풍경(2008, 2009)>, <극사적 실천(2010)>, <공조탈출(2010)>, <트윈픽스(2011)>등을 발표하였다.

그 외 단체전 <다중시간(백남준아트센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구 전남도청미술)>, <미래는 지금이다(국립현대미술관)>, <악동들 지금/여기(경기도미술관)> 등에 참여한 바 있다.

_Education

2006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아트전공 졸업
199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16 홀시네마(대구미술관, 대구)

2016 East Asia Moving(포닉스시네마 앤드 아트센터/
파브리카현대미술학회, 레스터/브라이턴런던, 영국)

_Solo Exhibition

2016 마음거울[心鏡](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해 질 녘 나의 하늘에는(성곡미술관, 서울)
2013 Belief in Art(아트스페이스 정미소, 서울)

2016 다중시간(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5 망각, 기억-없는 신체(팔레트 서울, 서울)
2015 무현금(진천 종박물관, 진천)
2015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2015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
2015 The Future is Now(한국문화원/프리쉬 라벨드메,
부다페스트/마르세르, 헝가리/프랑스)

_Group Exhibition

2016 사적인 광장(우민아트센터, 청주)
2016 남경국제미술포럼 "HISTORIC CODE: Scarcity
and Supply" (백화호 미술관, 남경, 중국)
2016 서울사진축제: 서울 신아리랑_천리의 강물처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6 풍경 속의 풍경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2016 OLD & NEW : 法古創新 - 현대작가, 간송을
기리다(DDP 디자인박물관, 서울)
2016 MSG:맛의 정치학(금천예술공장, 서울)
2016 가상의 정치(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6 내 인의 김광석 자아는 누구인가?(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디자인토레길&토레길 쉼터, 서울)

2015 한국 뉴미디어아트(피렌체 르 무라트 현대예술센터,
이탈리아)
2015 한중의 도덕(이르쿠츠크 국립미술관, 러시아)
2014 끝나지 않은 이야기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4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1980 그 후' (5.18 민주광장, 광주)
2014 동시적 올림(포르타벳 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13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프로젝트
'VIDEOLOGUE'
(아르코 미술관, 서울)

이우성

ddackji5@gmail.com



이우성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성장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88만원 세대에 속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의 감성을 담고 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가의 작업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을 건져 올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마치 B급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감성을 전달하는 그의 작업은 유머와 위트, 페이스를 포함한 제목과 함께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젊은이들의 발랄한 감성과 그들이 사회라는 커다란 구조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품게 되는 꿈과 희망, 그리고 그 경계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불안과 좌절, 고뇌를 담고 있는 작가의 작업세계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우성의 작업이 보여주는 예민한 감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대의 단면은 그의 다음 작업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다.

_Education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평면전공 전문사 졸업
2009 홍익대학교 회화와 졸업

_Solo Exhibition

2015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서울 포커스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SeMA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달, 정반달이 둥근 달>, 대우예술발전소, 대구
2016 <Twin Peaks>,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6 <Close Relation>, 상상마당, 서울
2016 <추적자 : 그들은 너무도 사랑했다>, 보안여관, 서울
2016 <Narration>, space bm, 서울
2016 <그다음 몸>, 소마미술관, 서울
2016 <Floating, Concrete>,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16 <구사구용>, SeMA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괴어오르다>, 샘표스페이스, 인천
2015 <폐허에서>,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2015 <굿즈 Goods>,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5 <미친광장 美親狂場>, 서울역284, 서울
2015 <Give Way>, 웨스포드 아트센터, 아일랜드
2015 <청색증>, <밤바다 Night Seeing>, 난지갤러리, 서울

2015 <자기소개서>,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5 <풀이 선다>,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5 <육감>, OCI미술관, 서울
2014 <Once is Not Enough>, 시청각, 서울
2014 <카테고 - 라이징>, 175갤러리, 서울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트, 서울
2014 <별별동행>, OCI미술관 순회전, 광양/포항/영주/군산
2014 <Who's Room>, 이화익갤러리, 서울
2014 <본업 : 생활하는 예술가>, 두산갤러리, 서울

_Awards

2013 OCI Young Creatives

_Regidency

2016 The Physics Room,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2015 SeMA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2014 Cow House Studio, 애니스코시, 아일랜드
2013 MMCA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_Project

2016. 6. 6~10 <Outdoor painting project>, The Physics Room,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12월 넷째 주

자신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는 분명 어려운 것이다. 자신이 그 작품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에 더더욱 객관적인 평가와 설명이 어려운데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반면 환경은 작가는 그런면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예리한 분이었다. 작가 스스로가 먼저 언급했듯,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였다. 자신이 시리즈 작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 그것이 작업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 시사하고 싶던 바, 그리고 세세한 작품의 디테일 등, 어쩌면 전시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뒷이야기들을 엿들어볼 수 있었다.

이런 작가들의 진솔한 자기 작품에 관한 성찰과 설명을 들은 청중, 월요살롱에 참가한 청자들은 하나 둘 씩 피드백을 준다. 피드백은 어떠한 교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굳히기 위한 피드백이다. 설명을 다 듣고 작품을 본 청중이 그걸 보고 느낀 바에 대해 솔직한 감상을 들려준다. 그 설명을 통한 해석으로 인해 자신의 작품의 설명이 다시 쓰일 수도 있고, 작가는 해당 피드백을 듣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설명과 비교하며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김신영 작가의 작품은 공간에 대해 재미있는 접근을 시도한다. 잔잔한듯 서정적인 풍경에 갑자기 구멍을 뚫거나, 빛을 쏘거나. 거울을 활용해 어떠한 소극적인 듯 서정적인 소통을 관객들에게 유도한다. 이제는 거의 찾기도 어려운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화면’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던것같다.

월요살롱은 어디에도 없는 토털미술관만의 독특한 이벤트이다. 참여 작가들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듣고 자신의 의견, 혹은 감상을 말하며 대화를 주고받는 재미난 크리틱공간이다. 화자와 청자 모두 진지하게 이 시간을 임한다.

한경은

femiwalker@hanmail.net



한경은은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통합예술치료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작가는 '치유적 사진'을 모색한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인간 내면의 심리와 무의식이 몸과 기억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발현되는지 연구하며 시각화하는 것이다. 치밀함과 인간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몸, 영적 성숙을 향한 내적 체험을 유도하는 몸의 의미에 주시하며 역사나 수동적이며 영적인 도구인 사진을 주된 매체로 활용한다. 토탈미술관, 아트스페이스J, Praxis Space, 상상마당, 고은사진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12년과 2016년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SKOPF)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되었다.

_Education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4 <기억의 가소성>, 프로젝트 스페이스 The Room(토탈미술관),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자아내다', <기억의 가소성>, 한국미술관, 용인

2015 'Lies of Lies: On Photography', <Invisible vision_#1, #2>, Huis met de Hoofden,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5 '거짓말의 거짓말', <Invisible vision_Restoration and Balance>, 토탈미술관, 서울

2014 'Photography Unknown', <기억의 가소성>,

아트스페이스J, 분당

2013 'TRIALOG', <Untitled>, 주한독일문화원, 토탈미술관

2013 'The Show must go on, Singapore', <Untitled>, Praxis Space, ICAS, 싱가포르

2013 'RoadShow 2013', <심(沈)의 위기와 회복>, 토탈미술관, 백철도&인천

2013 '사진과 사진', <묵정墨井>, 상상마당, 서울
2013 '사진 미래色', <묵정墨井>,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2 'homo empathicus', <묵정墨井>, 브레다미술관, 브레다, 네덜란드

2009 '플랫폼 인 기무사', <Voice>, 아트선재, 서울
2008 '거울 보는 약장수는 신파다', <나는 신파다>, 갤러리 소울, 서울

김신영



김신영 작가는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의 홍익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하여 MFA School의 MFA 과정을 이수했다. 김신영 작가는 사진술과 결합한 그림과 설치작업을 한다. 사진술을 통해 이미지 흔적을 찾고, 이미지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해 작가의 작품에 표현한다. 작가는 대안공간 루프, 한가람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_Education

2012~2014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MFA, Fine Arts
2007~2009 홍익대학교 대학원, MFA, 회화과 2003~2007 홍익대학교, BFA, 회화과

_Solo Exhibition

2018 <복기 Re-reused>, 누크 갤러리, 서울 2009
<After-image>, 숲 갤러리, 서울
2007 <Comfort zone>, 갤러리 스페이스 아침,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Cognition>, 서울예술재단 전시장, 서울
<LIU>, Gallery Concept 21, 도쿄
<JUST DO IT YOURSELF>, 갤러리175, 서울 <00의 기억>,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16 <1/N>,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고양레지던시 2016 입주작가 소개전 : INTRO>,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The First-Beyond the Frontier>

2015 <Day 1: Innbaka øur fiskur>, SIM House Gallery, 레이카비크 <PLUS ONE>, Sideshow Gallery, 뉴욕

<EPIC EPOCH GROUP SHOW>, Con Artist Gallery, 뉴욕

2014 <IAF>, Highline Loft Gallery, 뉴욕
<Merging Properties>, Open Gallery Space, 뉴욕
<HOME FRONT>, SVA Gallery, 뉴욕

2013 <Small Works>, Greenpoint Gallery, 뉴욕
2010 <Symbolon: Everything is never as it seems>, Hwa's Gallery, 상하이

2008 <THE CHART 가나아트 25주년 기념전>, 가나아트, 서울

<PRIVACY> 대안공간 루프 정기 회화전, 대안공간 루





월요일롱

일 정 2016. 3. 7 ~ 12. 26.
장 소 STATIONB_3027 (구 품임)

큐 레 이 터 신보슬
코디네이터 김은아 이태성
사 진 정효섭 이태성
디 자 이 너 황선아

작 가 김선우 김태동 이현우 이상현
정두섭 김병관 강재형 김가람
이희승 김승영 노경희 노기훈
이정우 최윤석 정지현 무진형제
유비호 이우성 환경운 김신영